

[보도자료] 쿠팡 와우카드, 출시 2년만에 200만장 돌파 쿠팡 안팎 넘나드는 혜택 통했다

2025. 9. 1.



- 독보적인 적립 혜택으로 PLCC 시장 대표 카드 등극
- KB국민카드와 함께 최대 200만원 쿠팡 기프트카드 증정 이벤트 진행

2025. 09. 01. 서울 - 쿠팡은 KB국민카드와 함께 출시한 ‘쿠팡 와우카드’가 출시 2년 만에 발급 200만 장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와우카드가 쿠팡의 ‘와우 멤버십’ 혜택을 완성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한 결과다.

쿠팡 와우카드는 와우 멤버십 가입 회원만 발급 가능한 제휴카드로,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쿠팡이 KB국민카드와 손잡고 2023년 10월 내놓은 카드다. 출시 2년 만에 200만 장 발급은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성과로,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시장의 대표 카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와우카드의 폭발적인 성장 비결은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제공되는 업계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적립 혜택이 와우 멤버십의 다른 혜택들과 강력한 시너지를 내기 때문이다. 와우카드 고객은 매월 최대 5만 2000원까지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결제액의 최대 4%(기본 적립 2%+추가 프로모션 2%, 월 최대 4만원), 기타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액의 최대 1.2%(기본 적립 0.2%+추가 프로모션 1%, 월 최대 1만2000원)만큼 쿠팡캐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비자(Visa) 카드의 경우 해외 결제까지 최대 1.2% 적립 대상에 포함돼 혜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와우 멤버십의 핵심 혜택인 ‘쿠팡이츠 무제한 무료배달’과 결합했을 때 혜택이 극대화된다. 와우회원은 쿠팡이츠에서 ‘무료배달’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와우카드로 결제 시 최대 4% 적립이 되는 ‘더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혜택 덕분에 와우카드 발급 회원의 대부분이 매월 쿠팡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혜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와우카드 제휴 혜택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대표적으로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에서 해외여행 예약 시 최대 20% 할인을,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는 종합이용권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혜택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쿠팡은 와우카드 200만 장 발급을 기념해 오는 10월 31일까지 KB국민카드와 함께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의 혜택 가맹점인 ‘스타샵’ 오프라인 매장에서 누적 이용금액 순위에 따라 총 2220명에게 쿠팡 기프트카드를 증정한다. 1위부터 20위까지는 각 200만 원, 21위부터 220위까지는 각 50만 원, 221위부터 2220위까지는 각 5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또한, 최근 3개월간 쿠팡 외 가맹점 이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스타샵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쿠팡이츠 기프트카드 1만 원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쿠팡 관계자는 “와우 멤버십 고객들께 더 많은 ‘와우’ 경험을 선사하고자 만든 와우카드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쿠팡 안팎을 넘나드는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을 제공해, 쿠팡 와우카드가 고객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